주말기획 | 야구장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안지만 흔든 포카칩’ 재치와 모욕 사이

감독·구단 욕할 땐 강제 제지하지만 과자봉지 조롱은 규제할 근거 없어 팬들 “표현 자유” “선수 모욕” 분분

KBO리그 삼성 안지만(33)이 4월29일 한화전 8회 2사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 대전구장 포수후면석에서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장면이 목격됐다. 한화를 응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팬이 ‘포카칩’ 과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 팬은 욕설도, 야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게임의 일종인 ‘포커’와 ‘칩’을 연상시키는 글자가 찍힌 과자 봉지를 안지만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 들고 있었다. 추정컨대 이 팬은 불법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시즌을 뛰고 있는 안지만을 향한 무언의 조롱을 가한 것이다. 안지만이 이 팬을 봤을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블론세이브를 했고, 삼성은 5-10으로 대역전패를 당했다.

경기는 끝났지만 논란은 남는다. 과연 이 팬의 행위는 재치인가? 아니면 모욕인가? 더 나아가 야구장에서 팬들이 행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가?

●세이프티 캠페인 뚫은 포카칩

구본능 총재 취임 이후 KBO는 안전한 야구장 문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론 그렇다. 2014년 5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관중이 난입해 심판이 위해를 당한 이후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됐다. KBO의 ‘세이프티 캠페인’은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 반입금지물 목록에 ▲소음이 심한 응원도구 ▲구단과 합의되지 않은 현수막 등 모든 표현물 ▲경기 진행과 안전한 관람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구단이 판단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판단주체가 KBO가 아니라 구단으로 적시돼있다.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대기업 기반 야구단이 팬을 규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민감하고 조심스런 사안이다. 결국 아주 노골적이지 않는 한, 구단이 팬의 표현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국내 야구단들은 팀의 감독, 단장, 모그룹 등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는 야구장 보안요원들을 통해 치우도록 강제한다. 실제 사례도 있다. 공항처럼 야구장 입장할 때 제한적이지만 짐 검사도 한다. 그러나 과자 봉지는 ‘세이프티 규정’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의도는 명백해 보이지만 못하게 할 규정은 마땅치 않다. 더 나아가 메이저리그처럼 약물을 복용한 선수 앞에 주사기를 들고 있는 관중들이 나타나면, 염문설이 터진 선수가 보도록 파트너 여성(공인의 경우)의 사진을 들고 서 있다면, 이 관중을 쫓아낼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그때그때 달라요?

심판과 KBO, 홈팀 한화 관계자들은 사견을 전제로 “애매하다. 단지 과자봉지를 들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가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 구단은 한화 구단측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서 공식 대응하는 순간, 문제는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야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어정쩡하게 안지만과 윤성환을 복귀시킨 ‘원죄’가 있는 한, 정면 돌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지만과 윤성환이 이 정도 야유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과 ‘종결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비열하게 선수를 흔드는 짓’이라는 시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대구라면 저럴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세이프티 캠페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팬의 표현의 권리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누가 나서서 판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더욱 애매하다.

▶관련기사 2면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수원 빅뱅’…K리그 진짜 더비 열린다

14일 수원FC-수원삼성 첫 연고지 더비 조덕제·서정원 감독 “특별한 하루 될것”

수원FC 조덕제 감독(왼쪽)과 수원삼성 서정원 감독이 1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더비 미디어데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14일 벌어지는 두 팀의 맞대결은 한국프로축구 사상 처음 열리는 연고지 더비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9개월여 긴 전쟁, 그 중 하나의 전투. 하지만 의미는 상당하다. K리그에 역사적인 ‘연고지 더비’가 임박했다. 수원FC와 수원삼성이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정규리그 10라운드 한 판 승부를 펼친다. 1983년 출범한 한국프로축구에서 ‘라이벌’ 클럽들이 격돌한 경우는 많았지만 같은 연고지 팀들이 초록 그라운드에서 힘을 겨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챌린지(2부리그)에 머문 수원FC가 프로전환 3년 만인 올해 클래식(1부리그)에 합류하면서 탄생한 새 역사다. 두 팀은 과거 FA컵에서 3차례 만났으나 당시 수원FC는 실업축구 소속의 ‘수원시청’이었기에 올해와 차이가 있다.

당연히 분위기부터 달랐다. 1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더비’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수원삼성-FC서울의 ‘슈퍼매치’ 등 빅뱅을 앞두고 종종 미디어데이가 진행됐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가올 경기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걸 대변한다. 이 자리에는 두 팀 명칭이 새겨진 한정판 머플러를 착용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덕제 감독, 주장 이승현(이상 수원FC), 서정원 감독, 주장 염기훈(이상 수원삼성)이 참석해 “‘축구수도’ 수원만이 갖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일부터 수원시청,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삼성의 안방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잇는 1번 국도에 두 구단 깃발 600개가 걸렸다. 일명 ‘깃발거리’는 경기 후 장소를 옮겨 승리한 팀의 깃발들만 추린 ‘승리의 거리’로 조성된다. 당일 사용할 매치 볼도 특별 제작됐다. 양 팀 로고, 경기 일자가 적힌 볼은 수원시청에 전시되며 수원시가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봉수대는 골이 터질 때마다 붉은색(수원FC)과 파란색(수원삼성) 연기를 피우도록 해 성대한 도시축제를 예고했다.

수원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칸으로 간 정유미·김민희·김태리 ‘화려한 주말’

14일 ‘부산행’ 상영…15일 ‘아가씨’ 공개

한국 여배우들이 칸 국제영화제의 첫 주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12일 오전(한국시간·이하 동일기준)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제69회 칸 국제영화제가 12일간의 축제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세계 영화계의 뜨거운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첫 번째 주말인 14일과 15일 한국영화와 그 주인공인 여배우들이 무대에 나선다. 한국영화로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초청받은 ‘아가씨’(제작 용필름)의 김민희와 김태리, 또 다른 공식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상영되는 ‘부산행’(감독 연상호·제작 레드피터)의 정유미다.

세 명의 여배우는 이틀 간격으로 칸 국제영화제의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을 밟는다. 모두 칸 방문이 처음이어서 새로운 경험을 앞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지만 한국영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는 같다.

첫 주자는 정유미다. 14일 오전 ‘부산행’ 공식 상영을 통해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를 처음 알리는 책임을 맡는다. 정유미와 칸의 인연은 사실 일찍 시작됐다. 2012년 주연한 영화 ‘다른 나라에서’로 경쟁부문의 초청장을 받았던 그는 당시 드라마 촬영이 겹친 탓에 아쉽게 레드카펫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4년 만에 다시 잡은 기회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아가씨’의 김민희와 김태리는 더 화려한 비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총 21편이 경합하는 경쟁부문 상영작이라는 프리미엄, 그에 더해 연출자인 박찬욱 감독을 향한 영화제의 뜨거운 관심이 두 여배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덕분이다. ‘아가씨’는 14일 오후 세계 각국의 취재진에 먼저 공개된다. 그 직후 김민희와 김태리는 또 다른 출연 배우 하정우, 조진웅과 함께 취재진 앞에 나서 영화를 직접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뤼미에르 극장의 레드카펫을 밟는 공식 상영은 15일 오전 진행된다. 김민희와 김태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희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겠다”는 말로 설렘을 드러냈다. 이를 실천하려는 듯 그는 영화제 동안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 촬영에도 참여한다. 이를 위해 ‘아가씨’ 출연진보다 이틀 앞서 10일 칸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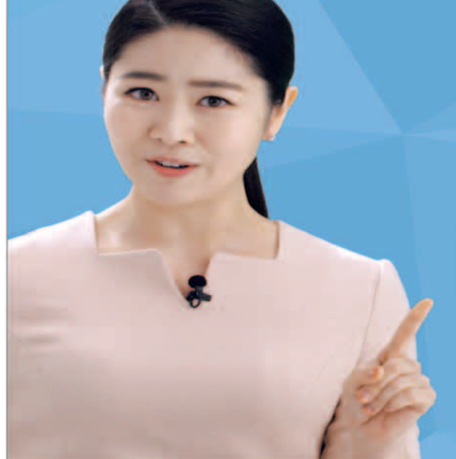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라이나생명 Cigna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00285호(2016.02.02)

오르지않는 보험료에
보철! 충전! 신경·영구치 발거치료까지!

김지영이 콕!
콕! 집어 추천하는 치아보험
라이나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III(비갱신형)



전동 드라이버 + 칼 가위 5종세트
상담만 받아도! 무료증정!

(1인 1회 증정에 한함)

보장금액이 좋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 보장
-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특약 가입시)
-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25만원, 틀니 50만원(특약 미가입시)
- 임플란트, 브릿지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틀니는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영구치 발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 56세~70세 고객은 보철치료보장특약III에 가입할 수 없음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세라믹 12만원, 레진 5만원, 아말감 1만원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금 등으로 덮어 씌우는 크라운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자주하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도 보장
- 치수치료 2만원, 영구치 발거 시 2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충치나 잇몸질환 치료 시 정액 보장

보장을 다 받아도 만기 시 만기지급금 20만원 지급!
(만기 생존 시)

0세~70세까지 온 가족 가입 가능

※ 위 보장 내용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된 치료에 한해 보장합니다.

[보험료 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26,200원	23,150원
40세	36,100원	29,450원
50세	53,150원	44,200원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III 5,000만원 / 보험기간 : 10년만기 / 납입기간 : 전기간월납 / 만기지급형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33,200원	0원	0.0%
3년	1,299,600원	0원	0.0%
5년	2,166,000원	111,355원	5.1%
10년	4,332,000원	200,000원	4.6%

*기준 : 남자 40세,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III 5,000만원 / 보험기간 : 10년만기 / 납입기간 : 전기간월납 / 만기지급형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080-797-7700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본 상품은 10년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월납, 만기지급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